

# 『三國史記』 列傳에 나타난 정치적 좌절의 양상과 김부식의 시각

- 勿稽子傳과 實兮傳을 대상으로 -

엄기영\*

|| 차례 ||

- I. 머리말
- II. 정치적 좌절의 양상과 김부식의 시각
- III. 서사문학사적 의의
- IV. 맺음말

## 【국문초록】

국이 글은 『三國史記』 列傳 중 「勿稽子傳」과 「實兮傳」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서 그려진 정치적 좌절의 양상을 고찰하고, 여기에 투영된 金富軾의 시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작품들의 문학사적 의의를 짚어보았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물계자와 실혜가 정치적 좌절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왕조 국가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이로 인한 문제를 충성스러운 신하와 아첨하는 신하의 대립이라는, 순전히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면모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당시 처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김부식의 정계 은퇴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패배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의 처지는 <乞致仕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물계자와 실혜

---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의 처지와 그대로 겹쳐진다. 김부식은 물계자와 실해를 입전하여 『삼국사기』에 수록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물계자전』과 『실해전』은 이른바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의 대립을 그려내는 전형적인 구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물계자전』과 『실해전』에서 설정된 이러한 구도와 서술 방식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변주되어 나타난다. 후대 서사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충신과 간신의 갈등, 대립의 구도’의 앞선 사례로서 『물계자전』과 『실해전』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좌절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 隱逸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한 내용이며, 후대 유학자들에게 물계자와 실해의 처신은 그들의 유교적 出處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물계자전』과 『실해전』의 결말 처리 방식은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의 지속을 상징하고 있다. 이는 隱逸傳의 장르적 관습을 수용한 것으로 후대의 전기소설의 결말 처리 방식과 흡사한바, 『물계자전』과 『실해전』은 그 앞선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三國史記, 勿稽子傳, 實兮傳, 金富軾, 정치적 좌절, 隱逸.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三國史記』 列傳 중 『勿稽子傳』과 『實兮傳』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들에 나타난 정치적 좌절의 양상과 이를 형상화하는 방식을 고찰하고, 여기에 투영된 金富軾의 시각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작품들에서 다루어진 정치적 좌절과 그 대응 방식이 가지는 문학적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간 『삼국사기』 열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들 연구 성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장르론의 관점에서 傳과 서사문학 장르와의 관련 양상에 주목한 연구이고,<sup>1)</sup> 다른 하나는

1) 傳과 서사문학 장르와의 관련 양상에 주목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참조할

열전 중 개별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론을 전개한 연구이다.<sup>2)</sup> 그런데 양쪽 모두 서사문학적 성향이 뚜렷한 작품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연구 성과가 『金庾信傳』, 『溫達傳』, 『都彌傳』 등과 같이 몇몇 소수의 작품들에 집중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경향으로 생겨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傳의 서사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과 의미를 보다 치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자가 그간 연구자들의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했던 『물계자전』과 『실혜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두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sup>3)</sup>

전근대 사회의 지식인에게 있어서 出處의 문제는 단순히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출처의 문제는 시대인식과 세계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어떤 특정인의 출처를 둘러싼 是非와 論爭

---

수 있다. 주명희, 『삼국사기 열전을 통해 본 초기 전의 양상』, 『백영정병옥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조태영, 『傳系 소설의 역사적 변모 과정』,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주명희, 『三國史記 列傳의 소설사적 위상』,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2) 『삼국사기』 열전에 대한 연구 성과는 국문학계와 역사학계 양쪽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국문학계의 연구 성과 중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윤영옥,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고』, 『동양문화』 제14·15합집,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소, 1974. 임형택,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성 : 『김유신전』의 삼국통일 형상에 주목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운달전>의 경우-』,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정민, 『고전문장이론상의 篇章字句法으로 본 <운달전>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 제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0. 이상구, 『<운달전>의 갈등구조와 소설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3) 『실혜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작품론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물계자전』의 경우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수록된 서사 작품을 비교하는 자리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임종욱, 『三國史記 列傳과 三國遺事의 敘事物 記述態度 比較 -함께 수록된 敘事物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문집』 제16집,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은 그 대상자만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시대인식과 세계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식인의 존재 양상 및 현실적 대응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문학사의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사, 문화사의 문제와도 관계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물계자전』과 『실혜전』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계자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王孫에게 미움을 받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끝내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했다는 인물이며, 실혜는 강직한 성품 때문에 동료의 참소를 받아 遠方으로 쫓겨난 인물이다.

그런데 작품 속에서 물계자와 실혜는 자신들의 처지와 관련하여 원망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그려진다. 대신 이들의 공은 성품만이 강조될 뿐이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면모는 작품 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三國史記』 편찬자 김부식이 『물계자전』과 『실혜전』을 이런 방식으로 서술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본고는 일차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명할 것이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하나의 전형적인 구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에서 마련된 이러한 구도가 서사문학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치적 좌절에 대한 대응으로서 隱逸이 갖는 의미와 후대 유학자들이 이들의 삶에 주목한 이유 또한 짚어볼 것이다.

## II. 정치적 좌절의 양상과 김부식의 시각

### 1. 「勿稽子傳」과 「實兮傳」의 정치적 좌절의 양상

물계자와 실혜는 그들의 정치적 좌절이 특정인과의 반목에서 비롯되었

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물계자는 王孫에게 미움을 받아 전쟁에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자 산으로 숨어버렸고, 실혜는 동료의 참소를 인해 조정에서 쫓겨났다. 그렇다면 이들이 미움과 참소를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계자전』은 물계자가 왕손의 미움을 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실혜전』은 실혜가 是非를 따질 때면 바름을 지켜 구차하지 않았다고만 할 뿐이다. 대신 이 두 작품은 이들의 성품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물계자와 실혜에 대해 각각 “물계자는 내해니사금 때의 사람이다. 집안은 대대로 미미하였으나 사람됨이 대범하고 강직하였으며, 젊어서부터 장대한 뜻이 있었다.”<sup>4)</sup> “실혜는 대사 순덕의 아들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의가 아닌 것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었다.”<sup>5)</sup>라고 서술함으로써 장차 이들이 자신들의 성품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이러한 서술 태도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는데, 특히 이들이 어떤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삼국사기』가 물계자, 실혜를 그려냄에 있어서 이들이 겪은 부당한 사건 자체보다는 이들의 성품과 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 물계자에게 물었다. “그대의 공이 이보다 클 수 없거늘 錄用되지 못하였으니 원망하지 않는가?” “무슨 원망함이 있겠소?”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왕께 아뢰지 않는가?” 물계자가 말했다. “공을 자랑하고 명예를 구하는 것은 志士가 할 일이 아니오 다만 마땅히 뜻을 힘써 행하고 후일을 기다릴 뿐이리오.”<sup>6)</sup>

4)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勿稽子, 奈解尼師今時人也. 家世平微, 爲人僮儻, 少有壯志.”

5)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實兮 “實兮, 大舍純德之子也. 性剛直, 不可屈以非義.”

6)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或謂勿稽子曰: ‘子之功莫大, 而不見錄, 怨乎?’ 曰: ‘何怨之有?’ 或曰: ‘盍聞之於王?’ 勿稽子曰: ‘矜功求名, 志士所不爲也. 但當勵

어떤 사람이 실혜에게 물었다. “그대는 할아버지 때부터 忠誠과 公材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지금 佞臣의 讒毀를 입어 죽령 밖의 荒僻한 땅으로 좌천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닌가? 어찌하여 직언으로써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가?” 실혜는 이렇게 답했다. “옛적 굴원은 홀로 곧았으나 초나라에서 배척을 당해 쫓겨났고, 이사는 충성을 다하고도 진나라에서 극형을 받았지요. 이로써 佞臣이 임금을 미혹케 하고 忠士는 배척을 당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음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슬퍼할 것이 있겠소?”<sup>7)</sup>

『물계자전』과 『실혜전』에서의 대화는 물계자와 실혜에 대한 대범하고 강직하며 불의로써 굴복시킬 수 없다는 서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두 작품은 問答 형식의 대화라는 전형적인 古文의 수법을 구사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성품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망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왕에게 사실을 아뢰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물계자와 실혜는 志士로서의 자세, 忠士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다. 이들에게는 원망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忠士가 배척을 받는 것은 원래 예전부터 그랬던 것이고, 志士라면 마땅히 자신이 인정받을 때를 기다릴 뿐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것은 志士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면모는 傳이라는 장르의 주요한 목적이 한 개인의 褒貶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서술 방식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王의 책임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왕에게 直言하여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佞臣이 임금을 미혹케 하고 忠士는

志, 以待後時而已.”

7)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實兮 “或謂實兮曰: ‘君自祖考, 以忠誠公材, 聞於時. 今爲佞臣之讒毀, 遠宦於竹嶺之外荒僻之地, 不亦痛乎? 何不直言自辨?’ 實兮答曰: ‘昔屈原孤直, 爲楚擯黜, 李斯盡忠, 爲秦極刑. 故知佞臣惑主, 忠士被斥, 古亦然也. 何足悲乎?’”

배척을 당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다”고 실혜는 대답한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眞平王이 佞臣을 총애했다는 사실(8)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고 서는 나올 수 없는 대답이다.

그렇다면 실혜는 왜 자신이 직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로부터 그러했다는 궁색한 논리의 답변만을 내어 놓았을까? 실혜는 진평왕에게는 자신의 직언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은 『金后稷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후직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진평왕이 사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며 김후직은 이를 두 번이나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이후 병이 들어 죽게 되자 그는 자신의 뼈를 왕이 사냥 다니는 길에 묻으라고 유언하였다. 훗날 왕이 사냥을 가던 중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김후직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였다. 이에 왕은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는 다시는 사냥을 가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은 진평왕이 얼마나 遊樂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왕은 김후직의 두 번에 걸친 간언을 완전히 무시하였으며, 이른바 ‘墓諫’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있고나서야 사냥을 그만 둘 만큼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치가 어지러워졌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김후직의 간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하께서는 날마다 狂夫, 獵士와 함께 매와 개를 풀어 꿩과 토끼들을 쫓아 산과 들을 달리어 스스로 그치지 못하십니다.”<sup>9)</sup> 김후직은 매일 왕과 가까이 하며 함께 사냥을 다니는 狂夫, 獵士를 측근으로 지목하고 있는 바, 이들은 앞서 『실혜전』에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佞臣 珍堤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진평왕은 자신을 유락으로 이끄는 狂夫

8)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實兮 “時下舍人珍堤, 其爲人便佞, 爲王所嬖.”

9) 『三國史記』 권45 列傳제5 金后稷 “今殿下, 日與狂夫獵士, 放鷹犬, 逐雉兔, 奔馳山野, 不能自止.”

와 獵士, 아침을 일삼는 佞臣에게 둘러싸여 忠士들의 간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물계자전』 또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왕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물계자는 두 번이나 큰 軍功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결국 세상을 등지기로 한다. 처음에는 공을 내세우고 명성을 구하는 것은 志士가 할 일이 아니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이던 물계자였지만 계속해서 공을 인정받지 못하자 끝내 포기하는 것이다.

일찍이 들으니 신하된 도리는 위험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어려움을 만나면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 하였는데, 지난 번 浦上과 竭火에서의 전투야말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것이오. 그러나 나는 목숨을 바치거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지 못했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저자와 조정에 나갈 수 있겠소?<sup>11)</sup>

물계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오로지 자기 탓으로 돌린다. “致命忘身”하지 못하였으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계자의 발언은 작품의 내용을 감안할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는 浦上 전투에서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으며, 竭火 전투에서도 적 수십 명의 목을 베는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보다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왕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10) 이에 대해서는 전미희, 『新羅 眞平王代 家臣集團의 官僚化와 그 限界 -三國史記 48, 實兮·劍君傳에 보이는 舍人에 대한 檢討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제48집, 1993. p.201 참조.

11)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嘗聞爲臣之道, 見危則致命, 臨難則忘身, 前日 浦上竭火之役, 可謂危且難矣. 而不能以致命忘身聞於人, 將何面目以出市朝乎?”

12)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勿稽子有大功”; “子之功莫大”; “勿稽子斬獲數十餘級.”



앞서 물계자는 志士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후일을 기다릴 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한 ‘후일’은 아마도 자신의 공이 인정받을 기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竭火 전투 후에 돌연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한 것은 이러한 ‘후일’이 결코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각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계자전』에서 서술한 浦上과 竭火 전투의 상황을 살펴보자.

그때 浦上의 여덟 나라가 阿羅國을 치기로 함께 꾀하자 아라국에서 사신을 보내와 구원을 청하였다. 이사금이 왕손 捺瞞으로 하여금 이웃의 군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주게 하여 드디어 8국의 군대를 패배시켰다.<sup>13)</sup>

그 후 삼년이 지나 骨浦, 柒浦, 古史浦 등 세 나라 사람이 竭火城을 공격하여 오자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여 세 나라의 군사를 대패시켰다.<sup>14)</sup>

浦上和 竭火 전투의 중요한 차이는 왕이 직접 참전했는지의 여부이다. 앞서 浦上 전투에서 물계자의 공이 인정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왕손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보잘 것 없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계자는 자신이 공을 세우는 모습을 왕이 직접 보지 못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盍聞之於王?”이라는 물음에 대해 “待後時而已”라고 답하며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다렸던 ‘후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선 갈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더 이상 후일을 기다릴 이유도, 희망도

13)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時八浦上國同謀伐阿羅國, 阿羅使來請救. 尼師今使王孫捺瞞, 率近郡及六部軍往救, 遂敗八國兵.”

14)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後三年, 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을 “不能以致命忘身聞於人”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聞於人”의 “人”은 앞서 “盍聞之於王?”이라는 질문의 “王”이었던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실혜전』과 『물계자전』은 실혜, 물계자의 끈은 성품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이들과 대조되는 존재로서 아첨하는 신하 珍堦, 개인적인 원한을 공적인 일에 개입시킨 왕손 捺諱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태도로 인해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왕의 잘못은 문면 아래도 감추어지고 말았다. 달리 말하면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좌절과 이로 인한 은일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시켜 다루고 있는 것이다.

## 2. 『물계자전』과 『실혜전』에 투영된 김부식의 시각

이상 『물계자전』과 『실혜전』에서 정치적 좌절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작품들에서는 정치적 좌절의 문제를 오로지 忠士와 佞臣의 대립 구도로만 국한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왕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서술 방식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김부식의 시각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삼국사기』의 편찬이 그가 정계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착수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36년 2월, 묘청의 난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김부식은 이를 완전히 평정하고 4월 개신한다. 그리고 그는 尹彦頤와 韓惟忠을 좌천시킬 것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김부식이 굳이 이들을 지목하여 좌천시킨 것은 개인적인 알력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윤언이로 대표되는 제도 개혁파와의 대립 때문이었다.<sup>15)</sup> 그러나 윤언이에 대한 김부식의 승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윤언이는 좌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40년

인종이 사면령을 발표함으로써 중앙 정계에 복귀한 반면,<sup>16)</sup> 곧이어 김부식이 宰臣·省郎들과 함께 올린 時弊 10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17)</sup> 게다가 함께 시폐 10조를 올렸던 鄭夔明은 諫官으로서 수상인 김부식의 집에 기숙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간관직에서 免職이 되기까지 하였다.<sup>18)</sup>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 김부식은 스스로 은퇴를 결심하고 상소를 올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다. 실상 김부식의 정계 은퇴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패배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사면령을 내려 윤언이를 복귀시키고 정승명과 같은 김부식 지지자를 먼 직시킨 仁宗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상의 퇴출을 강요당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자신의 충의와 정당함을 토로할 공간을 발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것”<sup>19)</sup>이라는 지적을 『삼국사기』 열전을 분석할 때 떠올릴 필요가 있다. 역사서에서 本紀의 기사 내용은 편찬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열전은 편찬자의 관점이 가장 많이 투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5) 이에 대해서는 이강래, 『삼국사기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통권8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p.28 참조.

16) 『高麗史節要』 제10권 『仁宗恭孝大王』 2 경신18년(1140) “親禱于大廟, 加上九廟及十二陵尊諡, 詔曰: ‘朕德不類, 遭時多難, 西賊犯順, 幸賴祖宗之德, 旋即平定. 今躬行禱享, 推美加號, 庶幾恩澤, 布及中外, 可赦二罪以下.’”

17) 『高麗史節要』 제10권 『仁宗恭孝大王』 2 경신18년(1140) “宰臣金富軾·任元貳·李仲·崔濬, 與省郎崔梓·鄭夔明等五人, 上書, 言時弊十條. 伏閣三日, 皆不報, 梓等, 乞罷不出.” 김부식 등이 올린 시폐 1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윤언이 등에 대한 사면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구복, 『김부식의 생애와 업적』, 『정신문화연구』 통권8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pp.14-15 참조.

18) 『高麗史節要』 제10권 『仁宗恭孝大王』 2 임술 20년(1142) “諫官劾奏, ‘秘書少監竇文閣待制金精, 嘗詣樞密金正純第, 使酒詬罵, 國子司業起居注鄭夔明, 請寓金富軾別第, 失諫官體, 請罪之.’ 於是, 精落竇文閣待制, 夔明落起居注, 諫官又奏, ‘精罪重罰輕, 請罷其職.’ 從之.”

19) 이강래, 앞의 논문, p.29.

물계자와 실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왕에게 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에 대해 원래 佞臣이 임금을 미혹케 하고 忠士가 배척당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했다고 말하거나 志士 또는 신하된 도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왕의 책임을 덮어두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계자와 실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에 초점을 맞춘 김부식의 의도는 무엇일까?

물계자와 실혜가 물러났던 이유는 자신들이 용납되리라는 희망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佞臣 珍堤와 王孫 捺諝이 가하는 위협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실혜와 물계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면, 진제는 “기빠하고 성냄에 급하여 비록 왕의 말씀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분을 어찌하지 못한다.”<sup>20)</sup>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며 더욱 심하게 실혜를 모함했을 것이며, 물계자에 대한 왕손의 미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더구나 가문마저 보잘 것 없었던 물계자의 입장에서 더더욱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계자와 실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물러나는 것뿐이었다. 실혜는 長歌를 지어 부르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며 떠나갔고,<sup>21)</sup> 물계자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문고 하나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세상과의 불화를 드러냈던 것이다.<sup>22)</sup>

혹시 부귀에 연연하여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뉘싯밥을 탐내다 결국 죽게 될 것이오니, 마땅히 늙은 몸을 수습하여 어진 이의 진출하는 길을 피해야 하겠사옵습니다. 엇드려 바라옵건대, 지극히 어지신 도량으로 측은히 생각하시

20) 『三國史記』 권48 列傳제7 實兮 “急於喜怒，雖大王之言，非其意則憤不能已。”

21)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實兮 “遂不言而往，作長歌見意。”

22) 『三國史記』 권48 列傳제8 勿稽子 “遂被髮携琴，入師毘山，不反。”

와, 날다 지친 새가 돌아가 쉬려는 것을 용납하시고 헤엄치고 노니는 고기로 하여금 제자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sup>23)</sup>

위의 인용문은 김부식이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올린 <乞致仕表>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김부식은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왕에게 퇴직을 청하는 글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있겠으나,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낚싯밥을 탐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심상치 않다. 이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식의 정계 은퇴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 좌천당했던 윤언이의 재등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sup>24)</sup> 그리고 김부식의 이런 발언과 그가 직면했던 상황은 바로 물계자와 실혜의 모습에 그대로 겹쳐지게 된다. 즉 물계자와 실혜를 立傳하여 『삼국사기』에 수록함으로써 김부식은 자신의 처지와 뜻을 드러냈던 것이다.

김부식의 이러한 의도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史論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論曰”로 시작되는 총 31개의 사론이 실려 있는데,<sup>25)</sup> 이 중 고구려 乙巴素와 신라 金庾信에 대한 사론은 그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

옛날의 밝은 입금이 어진 이를 대할 때, 등용하는 데에 구애됨이 없고 등용하면 의심하지 않았다. 殷나라 高宗의 傳說에 대한 것이나, 蜀나라 先主의

23) 『東文選』 제42권 『表箋』 <乞致仕表> “或戀軒而不退，貪餌而斯亡，宜收老身，以避賢路，伏望至仁大度，惻然見憐，容倦鳥之知還，使游魚而得所。”

24) 김부식의 <乞致仕表>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정구복, 앞의 논문, p.15 참조. 정구복 교수는 당시 김부식에 의해 좌천되었던 윤언이가 사면령을 통해 중앙 정계로 복귀한 것을 근거로, 이 발언은 윤언이의 정치적 보복을 우려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25) 이강래,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p.310 참조.

孔明에 대한 것이나, 秦나라 苻堅의 王猛에 대한 것이 그와 같다. 그런 후에 야 어진 사람이 자리에 앉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 政教가 밝게 닦아져서 나라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왕이 결연히 홀로 결단하여 巴素를 바닷가에서 뽑아 여러 사람의 입놀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관료의 윗자리에 두었으며, 또 천거한 자에게도 상을 주었으니 선왕의 법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당나라의 李絳이 憲宗을 대하여 말하기를 “사특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고 충성되고 정직한 이를 나오게 하며, 대신과 더불어 말할 때는 공경하고 믿음 있게 하여 소인을 참여시키지 말며, 어진 이와 놀 때에는 친하되 예절 있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참되도다! 이 말이여! 실로 임금의 정치에 중요한 도리이다. 그러므로 『書經』에 이르기 를 “어진 이에게 맡기어 의심하지 말며, 사특한 자를 제거하여 의심하지 말라.” 하였다. 신라에서 庾信을 대우함을 보건대 친근하여 틈이 없고, 일을 맡겨 의심치 않으며, 꾀를 내면 행하고 말을 하면 들어주어 그로 하여금 쓰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른바 『周易』의 六五童蒙의 吉함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유신이 그 뜻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중국과 협동 모의해서 3국을 합치어 한 집을 만들고, 능히 공을 이루고 이름을 날려 일생을 마치었다.<sup>27)</sup>

위의 사론에서 김부식은 을파소와 김유신의 경우를 인재를 등용하는 문

26) 『三國史記』 권16 『高句麗本紀』 제4 故國川王 13년 “古先哲王之於賢者也, 立之無方, 用之不惑. 若殷高宗之傳說, 蜀先主之孔明, 秦苻堅之王猛. 然後賢在位, 能在職, 政教修明, 而國家可保. 今王決然獨斷, 拔巴素於海濱, 不撓衆口, 置之百官之上, 而又賞其舉者, 可謂得先王之法矣.”

27) 『三國史記』 권43 列傳 제3 『金庾信』下 “唐李絳對憲宗曰: ‘遠邪佞, 進忠直, 與大臣言, 敬而信, 無使小人參焉, 與賢者遊, 親而禮, 無使不肖預焉.’ 誠哉! 斯言也. 實爲君之要道也. 故書曰: ‘任賢勿貳, 去邪勿疑.’ 觀夫新羅之待庾信也. 親近而無間, 委任而不貳, 謀行言聽, 不使怨乎不以, 可謂得六五童蒙之吉. 故庾信得以行其志, 與上國協謀, 合三土爲一家.”

제를 논하고 있다. 을파소는 미천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고국천왕에게 발탁되어 政敎와 賞罰을 명백히 하여 고국천왕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인물이며, 김유신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들이 이런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로 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을파소를 등용할 당시 기존 신하들의 반발에 대해 “귀천을 막론하고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족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을파소에게 힘을 실어준 고국천왕과 김유신을 대함에 “친근하여 틈이 없고, 일을 맡겨 의심치 않으며, 꾀를 내면 행하고 말을 하면 들어주어 그로 하여금 쓰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였”다는 善德王, 武烈王, 文武王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론에서 강조된 왕의 역할은 『물계자전』, 『실혜전』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된다. 어진 이를 등용함에 구애가 없었다는 것은 물계자가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며, 천거한 자에게도 상을 주었다는 것은 물계자가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어리석은 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며 일을 맡김에 있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은 실혜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듯 김부식은 『물계자전』과 『실혜전』에서는 왕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갔지만, 반대의 경우, 즉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경우를 褒獎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판의 뜻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스스로 表를 올리고 조정에서 물러났지만 사실상 퇴출을 강요당한 그의 처지를 투영시킨 것이기도 하다.<sup>28)</sup>

28) 본고에서는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입전 의도를 『삼국사기』 편찬 당시 김부식의 처지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褒貶이라는 열전의 근본적인 입전 의도를 부정하거나 간과하는 입장은 아니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에는 분명 포폄의 의도가 있으며, 물계자와 실혜를 褒獎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의 관심은 입전 과정에서 김부식의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 Ⅲ. 서사문학사적 의의

『삼국사기』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부당한 압력과 참소로 인해 정치적 좌절을 겪은 인물들이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그려내는 김부식의 시각이 『삼국사기』 편찬 당시 그의 처지와 관련하여 투영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서사문학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이른바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의 대립을 그려내는 전형적인 구도를 서사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왕조 국가에서 이들의 대립이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出處에 대한 시비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은 늘 존재해 왔던 것이고 보면, 실상 이들을 구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왕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간신과 소인의 존재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를 정점으로 한 왕조 국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쟁의 당사자인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었다. 이는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사회의 근간이자 이념적 기반인 유교 이념에 대한 회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품이 바르지 못한 간신 일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동시에 왕의 존재는, 일시적이지만, 희미해지거나 不在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왕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계자전」과 「실혜전」에서 설정된 이러한 구도와 서술 방식은



이후 서사문학사에서 계속해서 변주되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에 폭넓게 향유된 영웅소설에서는 성군이 될 자질을 가지고는 있으나 간신과 소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不明한 상태가 된 황제, 끝까지 신하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는 주인공인 충신, 주인공의 적대자로서 황제를 미혹시키고 충신을 참소하여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란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간신이 등장한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구도와 서술 방식이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변주되어 나타나는 것이다.<sup>29)</sup>

한편 정치적 좌절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 隱逸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또한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의의로 꼽을 만하다. 물계자와 실혜는 부당한 참소와 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은일을 택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후대의 유학자들에게 道를 실현할 수 있으면 나아가 자신의 경륜을 펼치며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와 도를 지킨다는 유교적 出處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물계자에 대해서는 吳希吉,<sup>30)</sup> 李灑,<sup>31)</sup> 南克寬,<sup>32)</sup> 李學逵,<sup>33)</sup>

29)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구도와 서술 방식이 변주되어 나타난 사례 중 하나로 영웅소설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물계자전』과 『실혜전』이 영웅소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바는 후대 서사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충신과 간신의 갈등, 대립의 구도’의 앞선 사례로서 『물계자전』과 『실혜전』이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30) 吳希吉, <勿稽子> 『海東淵源錄』卷1 “愚按, 詩曰: ‘明哲保身.’ 易曰: ‘知機其神, 勿稽子有焉. 古人曰: ‘人疑也而後入之.’ 稽子若在世, 則必有禍. 觀其魚, 有不怨天不尤人, 從容不迫, 深有自得之意, 深入山中, 而不後反, 不賢而能之乎? 人雖曰不學, 愚以爲學焉者也. 學求如斯而已也.”

31) 李灑, <師龔吟> 『海東樂府』 『星湖先生全集』卷之七 “吾聞琴者禁邪心, 不然有如師龔山, 彼哉衆人貪天功, 歸歟流水青山間, 有功不賞吾何與, 忠孝但與細君詳, 清明燭火城頭月, 流照當時斬馘場, 身將隱, 焉用文, 琴韻清, 我心長.”

32) 南克寬, <師龔山> 『續東都樂府』 『夢嚙集』乾 “師龔山高復高, 勿稽子眞英豪, 忘身自是盡臣操, 世莫我知敢言勞, 平生耻學術功徒, 不如去向山中逃, 心期獨付五絃知, 長歌慢彈閒遊遨, 嗚呼勿稽子眞英豪.”

33) 李學逵, <勿稽子> 『嶺南樂府』 『洛下生集』冊六 “盡忠須似勿稽爲, 懋賞毋如燭火

姜再恒,<sup>34)</sup> 俞漢騫<sup>35)</sup> 등이,<sup>36)</sup> 실혜에 대해서는 이익,<sup>37)</sup> 유한준,<sup>38)</sup> 金允植<sup>39)</sup> 등이 이런 관점에서 칭송하였다. 이들은 물계자에게는 원망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그를 介子推에 비유하기도 하고, 실혜에 대해서는 곤궁한 처지에서도 자신의 뜻을 더욱 독실하게 지켰음을 추켜세우며 賈誼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물계자와 실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처신을 잃지 않은 전범으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끝으로,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끝 부분에서 그려낸 물계자와 실혜의 마지막 모습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은 물계자와 실혜의 마지막 모습을 각각 “遂被髮携琴，入師嶽山，不反。” “遂不言而往，作長歌見意。”라는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일상적인 복식과는 다른 차림을 한다는 점에서 속세와 불합함을 의미하고, 입산하고 돌아오지 않았단든지, 떠나갔단든지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짐을 의미한다. 또한 거문고를 안고 있었고,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은 일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뜻을 음악을 통해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時，師嶽山按琴日，邦人如憶介之推。”

34) 姜再恒, <三國> 『東史評証』 『立齋先生遺稿』 卷之九 “按勿稽子屢戰有功，而賞不及焉，乃反自責己過而無怨尤之言，隱而不返，是亦之推之徒也歟。”

35) 俞漢騫, <廣韓賦> 『自著』 卷之一 “仰勿稽之遐厲，踵之推之高蹤。”

36) 勿稽子에 대해 언급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명단은 전덕재, 『勿稽子の避隱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1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pp.247-250을 통해 확인하였음.

37) 李灝, <冷林怨> 『海東樂府』 『星湖先生全集』 卷之七 “營蠅止衣巾，點污淪白黑，穹林大蔽牛，十斧行可斫，此理古來然，雖道更何益，陵陽太多事，三獻終剖璞，不見楚臣原，冷林即湘沅，賈生逐天涯，冷林即長沙，浮雲翳翳白日徂，採採蘭蓀欲遺誰，竹嶺以外真吾鄉，此心耿耿空自知。”

38) 俞漢騫, <廣韓賦> 『自著』 卷之一 “悼實兮之棘棘，遭蔽美而嫉妬，擯荒陬而作歌，援楚藥而自固，”

39) 金允植, <登高賦> 『雲養集』 卷之七 “昔實兮之見放兮，矢長歌而自勞，庾被譴於鵠島兮，猶上書而圖報，身處窮而篤志兮，救前修之卓識，安素履而委命兮，庶憂悔之無積，依山椒而發嘯兮，聲振越乎林薄，願從蘇門之真人兮，至道在於默默。”

이러한 표현들은 물계자와 실혜에 대한 신비감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세계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의 지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물계자와 실혜의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史書의 隱逸傳에 등장하는 隱者의 모습과 유사하다.<sup>40)</sup>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찬자는 은일전에서 은자를 형상화하는 표현을 차용함으로써 물계자와 실혜가 안고 있었던 불화와, 이러한 불화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후의 전기소설에서도 흔히 보이는 작품 종결 방식인데, 이 역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보다는 주인공이 지상의 생에 대한 전망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sup>41)</sup> 예컨대 “不知所終” “入山採藥” “往而不反” “遍遊名山” “被髮” 등의 구절이 전기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의 비극적 세계 인식을 표현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결말 방식은 후대 전기소설의 결말 방식의 앞선 사례로서 그 의의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42)</sup>

#### IV. 맺음말

이 글은 『三國史記』 列傳 중 『勿稽子傳』과 『實兮傳』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 속에서 그려진 정치적 좌절의 양상을 고찰하고, 여기에 투영된 金富軾의 시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작품들의 문학사적 의의를 짚어보았다.

40) 隱逸傳과 隱者에 대해서는 심우영, 『六朝 隱士 研究 (I)』, 『상명대학교 논문집』 제26집,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1990 참조. 또한 전덕재, 앞의 논문, p.228에서는 구체적으로 西晉의 隱士인 孫登을 거론하여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41) 박희명, 『金鰲新話의 小說美學』, 『韓國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p.224.

42) ‘충신과 간신의 갈등·대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계자전』과 『실혜전』이 직접적으로 전기소설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면모는 은일전의 장르적 관습을 수용한 것이며, 이는 전기소설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물계자와 실혜가 정치적 좌절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그저 王孫의 미움을 받았다거나 佞臣의 참소를 입었다고만 할 뿐이다. 대신 이 작품들은 이들의 성품에 서술의 중심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忠臣과 佞臣, 君子와 小人을 구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왕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문면 아래로 감추는 결과를 낳았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왕조 국가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이로 인한 문제를 충성스러운 신하와 아첨하는 신하의 대립 이라는, 순전히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이러한 면모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의 당시 처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妙淸의 난을 평정하고 개선한 김부식은 尹彦頤와 韓惟忠의 좌천을 관철시킴으로써 제도 개혁파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仁宗은 곧 사면령을 내려 윤언이를 복귀시킨 반면, 김부식이 측근들과 함께 올린 時弊 10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함께 시폐 10조를 올린 鄭襲明은 諫官職에서 면직되었다. 결국 김부식의 정계 은퇴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패배 때문이었다.

물계자와 실혜가 아무 말 없이 물러났던 것은 佞臣 珍堤와 王孫 捺諷의 참소, 위협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참소와 위협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長歌를 지어 부르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거나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문고 하나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세상과의 불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김부식은 <乞致仕表>에서 자신의 처지를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낚시바늘을 탐내다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김부식의 정계 은퇴가 그에 의해 좌천당했던 윤언이의 재등용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부식이 당시 직면했던 이러한 상황은 바로 물계자와 실혜의 상황

에 그대로 겹쳐지게 된다. 김부식은 물계자와 실혜를 입전하여 『삼국사기』에 수록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왕조 국가에서 이른바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의 대립은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였다. 그런데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은 늘 존재해 왔던 것인바 실상 최고 권력자인 왕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간신과 소인의 존재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이른바 충신과 간신, 군자와 소인의 대립을 그려내는 전형적인 구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품이 바르지 못한 간신 일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그려지며, 동시에 왕의 존재는 희미해지거나 不在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왕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계자전」과 「실혜전」에서 설정된 이러한 구도와 서술 방식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변주되어 나타난다. 후대 서사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충신과 간신의 갈등, 대립의 구도’의 앞선 사례로서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의의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좌절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 隱逸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한 내용이다. 물계자와 실혜의 처신은 후대 유학자들에게 유교적 出處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후대 유학자들은 이들이 원망함이 없었으며, 곤궁한 처지에서도 자신들의 뜻을 더욱 독실하게 지켰음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처신을 잃지 않은 전범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끝으로, “遂被髮携琴, 入師巍山, 不反.”과 “遂不言而往, 作長歌見意.”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결말 처리 방식은 주인공과 세계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의 지속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는 隱逸傳의 장르적 관습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물계자전」과 「실혜전」의 결말은 후대 傳奇小說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결말 처리 방식과 흡사한바, 「물계자전」과 「실혜전」은 그 앞선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金富軾 撰, 『三國史記』(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勘校·譯註, 『譯註 三國史記』 1~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국역 高麗史節要』(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국역 東文選』(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姜再恒, 『東史評証』, 『立齋先生遺稿』 卷之九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金允植, 『雲養集』 卷之七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南克寬, 『續東都樂府』, 『夢嚙集』 乾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吳希吉, 『海東淵源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료총서).
- 俞漢窩, 『自著』 卷之一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李瀾, 『海東樂府』, 『星湖先生全集』 卷之七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李學達, 『嶺南樂府』, 『洛下生集』 冊六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 박성규, 『高麗前期 文學思想 研究 -金富軾의 文學사상을 中心으로-』, 『漢文學報』 제18집, 우리한문학회, 2008.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 심우영, 『六朝 隱士 研究 (I)』, 『상명대학교 논문집』 제26집,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1990.
- 윤영옥,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고』, 『동양문화』 제14·15합집, 영남대 동양문화연구원, 1974.
- 이강래, 『삼국사기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통권8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 \_\_\_\_\_,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 이상구, 『<온달전>의 갈등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 이종문, 『三國史記 崔致遠 列傳에 投影된 金富軾의 意識의 몇 局面』, 『어문논집』 제35호, 민족어문학회, 1996.
- 임종욱, 『三國史記 列傳과 三國遺事의 敘事物 記述態度 比較 -함께 수록된 敘事物 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논문집』 제16집,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 임형택, 『삼국사기 열전의 문학적 성 : 『김유신전』의 삼국통일 형상에 주목하여』, 『한국

- 한문학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회, 1989.
- 전덕재, 『勿稽子の 避隱과 그에 대한 평가』,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1호,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0.
- 전미희, 『新羅 眞平王代 家臣集團의 官僚化와 그 限界 -三國史記48, 實兮·劍君傳에 보이는 舍人에 대한 檢討를 中心으로-』, 『國史館論叢』 제48집, 1993.
- 정 민, 『고전문장이론상의 篇章字句法으로 본 <온달전>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언어학』 제9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0.
- 정구복, 『김부식의 생애와 업적』, 『정신문화연구』 통권8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 조태영, 『傳系 소설의 역사적 변모 과정』,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 주명희, 『삼국사기 열전을 통해 본 초기 전의 양상』, 『백영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 \_\_\_\_\_, 『三國史記 列傳의 소설사적 위상』,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온달전>의 경우-』, 『한국한문학연구』 제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Abstract

The Political Frustration expressed in the Chronicle of the Three  
*Kingdom*(三國史記) and the Viewpoint of  
Kim, Bu Sik(金富軾), the Editor

Um, Gi-Young

This paper is aimed to explicate the political frustration expressed in the biography of Mulgyeja(勿稽子) and Silhye(實兮) collected in the Chronicle of the Three Kingdom(三國史記) and the viewpoint of Kim, Bu Sik the editor, and add to its meaning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biographies of Mulgyeja(勿稽子) and Silhye(實兮), the organizational contradiction of Silla dynasty is not discussed, but all of problems is treated as the interindividual conflict between the loyal and disloyal subject. This features of the biographies is concerned with Kim, Bu Sik's situation when he compiled the Chronicle of the Three Kingdom. He retired from politics for political defeat, not for old age. His situation at that time is described in the letter of resignation(乞致仕表), and it is correspond to the situation of Mulgyeja and Silhye. He reflected his situation and intention on the biographies.

The biographies of Mulgyeja and Silhye have the meaning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which presented the typical model of the conflict between the loyal and disloyal subject. The conflicts between the loyal and disloyal subject in the later literature are all variations on this.

The seclusion of Mulgyeja and Silhye were understood as good conduct coincided with Confucianism by Confucian in Joseon(朝鮮) dynasty. And the ending of the biographies symbolize the impossible reconciliation between self and world, it is the preceding case of the ending of Jeonki(傳奇).

Key-words : the Chronicle of the Three Kingdom(三國史記), biography of



Mulgyeja(勿稽子), biography of Silhye(實兮), Kim, Bu Sik(金富軾), political frustration, seclusion.

엄기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서울 중랑구 상봉1동 건영캐스빌 1507동 2504호

전화번호 : 010-8868-7000

전자우편 : ukyfree@korea.ac.kr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